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

우흐트도르프 장로: 치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올 것입니다, 2쪽

이 자매: 주 안에서 안식을 찾는 방법, 22쪽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고치셨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가시기

를
간청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2023년 4월 연차 대회)



목차

“구주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후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분의 궁극적인 권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2쪽

- 2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8 『성도들』, 제4권에 실린 이야기:
페루에서 일어난 비극과 치유
- 12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올리비아 그레이슨
- 18 여기에 교회가 있다: 파푸아뉴기니
- 20 교회 잡지 활용하기: 하늘의 보물
- 22 성약의 여성: 성약 안에서 얻는 안식의 축복
크리스틴 엠 이 자매
- 25 신앙의 초상: 내가 회복된 교회를 선택한 이유
카를로스 라바날레스
- 26 후기 성도의 소리
여러 저자들

- 30 청년 성인: 생각을 바꾼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애비 라킨스
- 34 청년 성인: 삶이 힘들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리니 스틸로
- 36 주님의 집에 대한 역사적 관점: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가서]”
매슈 맥브라이드
- 40 와서 나를 따르라: 추수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 42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계시를 구함
- 44 와서 나를 따르라: 조셉, 마틴, 그리고 잃어버린 원고에서 얻은 교훈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표지
그가 그들 모두를 치유하시고, 마이클 맘, 복사 금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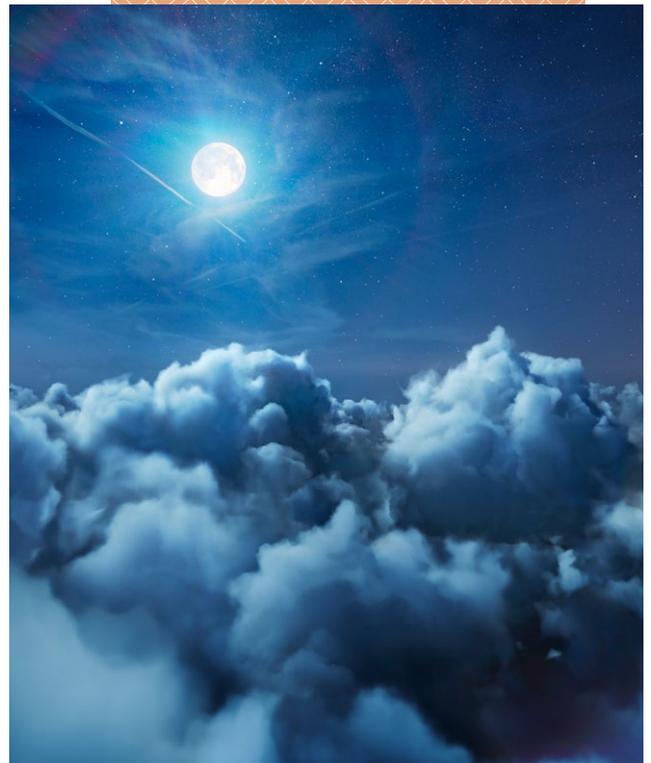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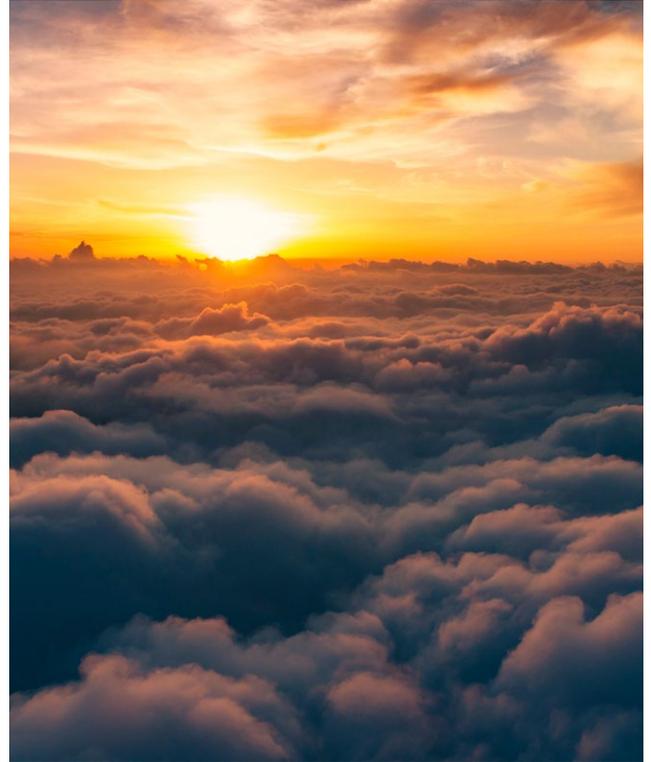
제가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거리 비행을 했던 경험 중 몇 가지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독일에서 오전 11시에 이륙하여 같은 날 오후 1시에 캘리포니아에 착륙한 경우였습니다. 현지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만 놓고 비교해 보면, 대서양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데 단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잉 747기가 아무리 빨라도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독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9,000km를 이동하는 데는 그 날의 바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11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하는 동안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내내 한낮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독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는 이른 오후에 이륙했지만 동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평소보다 더 빨리 해가 지더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 이 지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제 영혼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구주께서 베푸신 치유의 성역은
부활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할
지속적인 육체적, 정서적 치유에 대한
신성한 서막이자 약속입니다.

종종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칠후 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 비행하더라도, 저는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우리의 여행이 끝나기 전에 그 밝은 빛이 돌아와 [새로운 하루를 따뜻함과 생명으로 채워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상황으로 인해 해가 더 느리게 또는 더 빠르게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태양이 하늘에서 변함없이 굳건하고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지혜와 목적에 깊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때 기쁜 희망과 지속적인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다른 것들이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러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둠과 슬픔, 불확실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저는 믿을 수 있고 참된 진리와 빛의 근원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리와 성약 88:6~11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우리 여정의 어두운 날들을 밝혀 줄 신성한 빛을 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기에 공의에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쳐 불멸과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 하든,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이지(니파이후서 1:15)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닌 가능하게 하는 권능과 구속하는 권능에서 옵니다. 구주께서는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지닌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도울 방법을 아십니다. (앨마서 7:12 참조)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니파이후서 26:2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구조하십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속죄 희생을 치르시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에게서 치유와 강화와 구속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¹

그 권능은 태양처럼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선택은 어둠에서 나와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따뜻함과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들어 올리고 강하게 해 주시는 그분의





신성한 사랑을 신뢰하기로 영원토록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²

“내게로 돌아오라”

물론경에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사흘을 보낸 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둘러싼 물리적인 어둠은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경험하는 영적인 어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들을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제3니파이 9:13)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라].”(제3니파이 9:20)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제3니파이 10:6)

구주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그와 똑같은 권유를 하십니다. 해가 뜰 때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듯이, 우리도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시작, 밝은 새 출발을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마냥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는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고린도후서 7:10)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해를 끼쳤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을 구해야 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여야 합니다.(모사이야서 5:2)

그런 종류의 변화는 긴 여정이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날”이 시작되고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앨마서 34:31)

하나님은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잊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도록 노력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손상됩니다. 그러나 회개 절차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필멸의 몸과 다르게, 그 흉터가 사라집니다.”³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구주께서는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의 치유 권능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 주는 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고대 미 대륙에서 그분이 친히 성역을 베푸신 물몬경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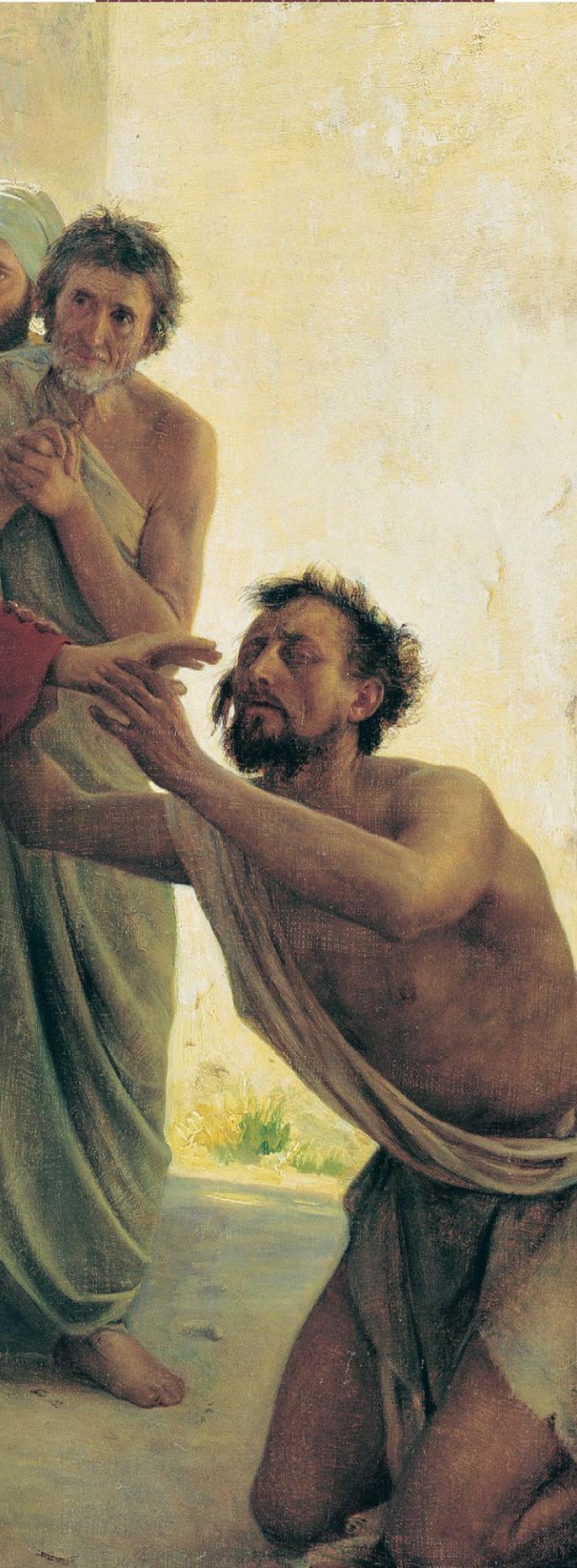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우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제3니파이 17:7, 9)

구주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후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분의 궁극적인 권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각각의 기적적인 치유는 부활 때 우리 각자에게 임할 지속적인 육체적, 정서적 치유의 서막이자 약속이었으며, 그것은 “주님의 치유를 완결 짓는 행위”입니다.⁴

이생에서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밤의 어둠이 항상 적절한 때에 찬란한 일출에 자리를 내주듯이 치유의 시간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묵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 우리





“눈먼 자를 고치시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

시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멸의 문제와 고통을 아는 반면, 그분은 우리의 불멸의 발전과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와 용기를 갖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 하늘의 치유는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과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⁵

최근에 제 아내 해리엇과 저는 저희 기도예 저희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소망과 간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의료진이 그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즉각적인 치료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구주의 치유 권능이 그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주의 구속 권능이 미치는 치유의 효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상의 어떤 치료보다도 우리의 정서적, 영적, 심지어 육체적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생과 영원의 치유자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구주의 자비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을 강화해 주고, 희망과 지혜와 그분의 평안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한동안 그분의 사랑과 빛과 따뜻함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조차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경외심과 깊은 감사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영원히 약속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마서 33:23) ■

주

1. 러셀 엠 벨슨, “영적인 가속도의 힘”,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100쪽.
2.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57쪽 참조.
3.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8쪽.
4. 러셀 엠 벨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7쪽.
5. 러셀 엠 벨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6쪽.

페루에서 일어난 비극과 치유



19 90년 6월 7일 늦은 시간, 선교사 마누엘 나바로와 그의 선교사 동반자인 기예르모 추키망고는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며, 페루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즐겁게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들이 현재 봉사하는 지역인 우아라스는 밤이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빛나는 길'이라는 의미의 센데로 루미노소라는 혁명 단체가 10년 넘게 페루 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페루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들은 더 저돌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었다.¹





페루의 다섯 개 선교부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시간을 정하고 선교 활동을 낮 시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나바로 장로와 추키망고 장로는 즐거운 기분에 말이 많아졌다. 그들은 방금 복음 토론을 가르쳤고 15분 정도면 숙소에 도착할 터였다.

그들이 담소를 나누며 걷는 동안 나바로 장로는 한 구획쯤 앞에 두 청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노란색 자동차를 밀고 있었다. 마누엘은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들은 곧 시동을 걸더니 차를 타고 떠났다.

잠시 후, 선교사들은 숙소 근처 공원에 이르렀다. 아까 그 노란색 자동차가 그들이 걷고 있는 곳에서 1.5미터쯤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근처에는 군사 기지가 있었다.

“자동차 폭탄 같아요.” 추키망고 장로가 말했다. 나바로 장로는 몇몇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차가 폭발했다.

폭발이 나바로 장로를 덮쳤고 파편이 주위를 날아다니는 가운데 그는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 그는 겁에 질린 채 땅에 떨어졌다. 동반자가 생각났다. ‘그도 직격탄을 맞은 걸까?’²

바로 그때, 나바로 장로는 추키망고 장로가 자신을 땅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다. 폭탄의 명백한 목표물인 기지의 군인들이 연기가 자욱한 자동차의 잔해 너머로 충격을 퍼붓자, 공원은 마치 교전 지역이 된 것 같았다. 나바로 장로는 동반자에게 기댄 채 숙소까지 남은 길을 간신히 걸어갔다.

숙소에 도착하자, 그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피투성이였으나 머리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저 현기증만 났다.

“축복을 주세요.” 그는 동반자에게 말했다. 가벼운 상처만 입은 추키망고 장로는 떨리는 손을 나바로 장로의 머리에 얹고 그를 축복했다.

얼마 후, 나바로 장로는 병원에서 과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그는 급히 수혈을 받아야 했다. 우아라스의 성도들이 헌혈을 하려고 병원에 왔지만 그들 중에는 맞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의사들은 추키망고 장로의 혈액을 검사했고, 그들의 혈액형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추키망고 장로는 다시 한번 동반자의 목숨을 구했다.³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의사들은 나바로 장로를 리마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지역 회장단의 찰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어. 넌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졌니?”

에이 디디에 장로가 그에게 축복을 주며 그가 머지않아 선교 임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사들은 나바로 장로의 다른 부상을 치료하고 나서 다친 얼굴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폭탄 파편으로 광대뼈가 쪼개지고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절단되어 오른쪽 안구를 제거해야 했다. 리마에 온 그의 부모가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

교회의 전적인 재정 지원으로 나바로 장로는 안구를 제거하고 손상된 안와를 재건하는 수술을 세 번 받게 되었다.

나바로 장로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리마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던 고향 친구 루이스 팔로미노가 문병을 왔다. 나바로 장로는 부상 때문에 루이스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토론을 나누기 시작했다.

루이스는 선교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나바로 장로의 결정에 놀라며 감명을 받았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어.” 루이스가 말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졌니?”

폭발 사고가 있는 지 6주 후, 나바로 장로는 병원을 떠나 리마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테러의 위협이 있었으며, 그는 폭발 차량과 비슷한 차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 루이스가 나바로 장로를 만나러 선교부 사무실에 왔다. 그가 말했다. “침례를 받고 싶은데, 뭘 해야 하니?”

다음 몇 주 동안 나바로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근처 예배당에서 루이스에게 나머지 토론을 가르쳤다. 나바로 장로는 친구를 가르칠 수 있어서 기뻐고, 루이스는 선교사들과 함께 세운 모든 목표를 열심히 완수했다.

1990년 10월 4일, 나바로 장로는 루이스에게 침례를 주었다. 나바로 장로는 여전히 부상으로 힘들어했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 고향 친구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다. 그 일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루이스가 물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포옹했고, 나바로 장로는 강한 영을 느꼈다. 그는 루이스도 그 영을 느꼈음을 알았다.

나바로 장로는 루이스의 침례를 기념하며 성경책을 선물했다. 나바로 장로는 표지 안쪽에 이런 말을 적었다. “암울한 날이 오면 네가 새로 태어난 오늘을 기억해라.”⁵ ■

현대 교회 역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으려면 『성도들』, 제4권을 읽는다. 이 책은 북음 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며 인쇄본으로도 볼 수 있다.

주

1.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10일], 1~4쪽;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15], 3~4쪽; 스위치, “Sendero Luminoso and Peruvian Counterinsurgency”, 53~57쪽.
2. 찰스 디디에, 하트만 렉터 이세, 에프 멜빈 해먼드가 엠 리셀 벨라드에게, 1990년 2월 6일, 선교사 집행 위원회, 모임 자료, 교회 역사도서관;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10일], 4~7쪽; 추키망고, 구술 역사 인터뷰, 6~7쪽;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15], 4쪽.
3.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10일], 5, 7, 14쪽; 추키망고, 구술 역사 인터뷰, 7쪽;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20일], 1쪽;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15], 5쪽.
4. 팔로미노, 구술 역사 인터뷰, 1~2, 4쪽;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10일], 11쪽.
5.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10일], 7, 10~11쪽;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8월], 6~8쪽; 나바로, 이메일 인터뷰; 나바로, 구술 역사 인터뷰[2022년 5월 20일], 1~3; 팔로미노, 구술 역사 인터뷰, 4, 6쪽.

제4권에 수록된 전체 작품 목록은 sai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회복 초기에 일어난 일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올리비아 그레이슨

귀환 선교사,
뉴욕 및 펜실베이니아 역사 유적지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역사 유적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과 관련된 사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감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곳에서 느꼈던 것처럼 영을 느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함께 이 성스러운 유적지를 둘러보며 회복에 관한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첫번째 시현

나는 1820년 어느 봄날, 조셉 스미스가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갔을 때 나무에 새로 돌아나고 있었을 녹색의 어린 잎들을 상상해 본다. 당시 열네 살이었던 소년이 더는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고(조셉 스미스—역사 1:13) 싶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상상해 본다. 이 나무숲은 훗날 성스러운 숲으로 알려지게 된다.¹

그는 나중에 어린 십 대 시절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내 마음은 몹시 괴로워졌다.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했다. 내가 찾아가 자비를 구할 분은 그분뿐이었다.”² 이것이 그가 그날 아침에 기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며 조셉에게 어디서 위안을 찾아야 할지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계신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³





2 모로나이 천사

조셉이 숲에서 그 성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도 삶은 계속되었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의 무게로 짓눌렸다.(조셉 스미스—역사 1:28~29 참조) 1823년 9월 21일, 그는 또다시 기도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침대 옆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을 열일곱 살의 조셉을 상상해 본다. 그는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동안 빛이 내려와 그가 형제들과 함께 쓰는 작은 침실을 가득 채웠다.

그를 방문한 이는 모로나이 천사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조셉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⁴ 그런 다음 천사는 주님께서 조셉을 위해 계획하신 일을 설명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금판에 씌어진, 책이 문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또한 실려 있다고 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34)

쿠모라 산에서 금판을 얻고, 장차 물문경으로 불릴 그 기록을 번역하는 것이 조셉의 임무였다.

3 쿠모라 산

세월이 흐르고 조셉이 성장하는 동안, 모로나이는 쿠모라 산에서 젊은 선지자를 가르쳤다. 매년 천사는 조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판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조셉이 매년 모로나이를 만난 후 내년에는 준비가 돼 있기를 열망하며 산을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조셉은 “[그 기록을] 꺼낼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조셉 스미스—역사 1:53) 매년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조셉은 좌절감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모로나이 천사에게서 주님의 “왕국이 마지막 날에 인도되어야 할” 방법을 배우면서 “가르침과 지식을 [받는]” 편을 선택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54)

당시 조셉의 이웃 중에는 그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조셉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지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현을 보았[고] …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조셉은 1827년 1월 에머 헤일과 결혼했다. 그녀는 1827년 9월 22일 자정이 조금 지나 마침내 조셉이 금판을 받을 준비가 되자마자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쿠모라 산으로 갔다.

조셉이 금판을 얻기 위해 4년을 기다렸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름으로 받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배우고, 신앙심을 깊게 한다면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4 몰몬경 번역

몇 달 후 조셉과 에머는 에머의 부모가 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1828년 금판
번역이 시작되었다.

에머와 조셉은 첫 아이의 죽음과 같은 시련을 많이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번역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서기 중 한 명으로 일했던 농부 마틴 해리스가 번역된
116쪽의 원고를 가족에게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주님께 여러 번 간구한 끝에, 마틴이 116쪽의 원고를
팔마이러로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 원고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했고, 그 결과 주님께서서는 조셉의 번역 능력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가셨다. (교리와 성약 3편; 10편 참조)

원고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셉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다 잃었구나! ... 이제 전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 조셉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3:10)

하나님께서서는 조셉에게 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다. 마틴 해리스, 조셉 나이트, 올리버
카우드리와 같은 든든한 친구들과 우림과 듄뎀, 선견자의 돌과
같은 도구의 도움으로 몰몬경의 번역은 1829년 진척을 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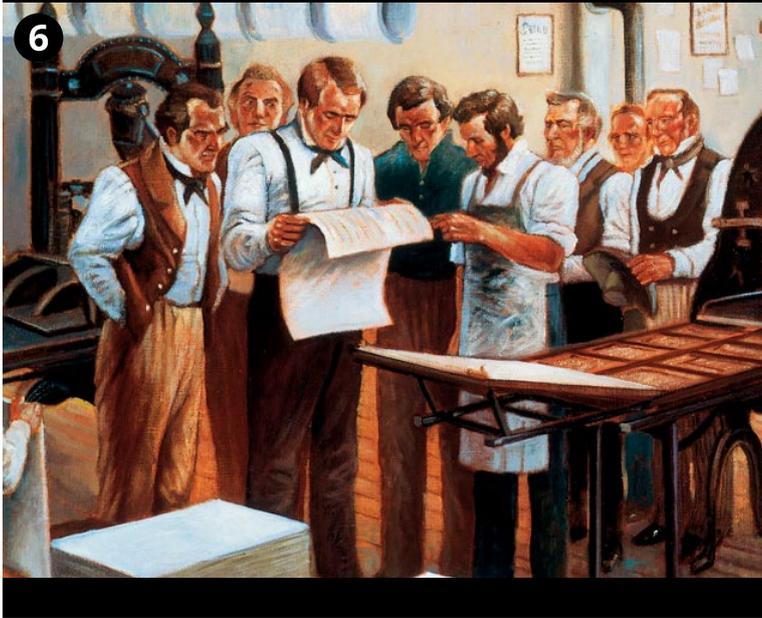
5 신권 회복

조셉이 번역하고 올리버가 서기로 일하는 동안 그들은 침례에
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나는 조셉과
올리버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조셉의 농장
숲속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를 방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교리와 성약 13:1)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이렇게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침례 의식이
행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에게
멜기세덱 신권과 열쇠들을 부여했다.

* “침례(신권)”, 윌터 케인, “모리니”, 황사기, 조셉 스티븐에게 나타나다”, 톰 로벨, “하나님의 은사와 관음으로”, 사이먼 두이, “너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린다 윌리 크리스텐슨과 마이클 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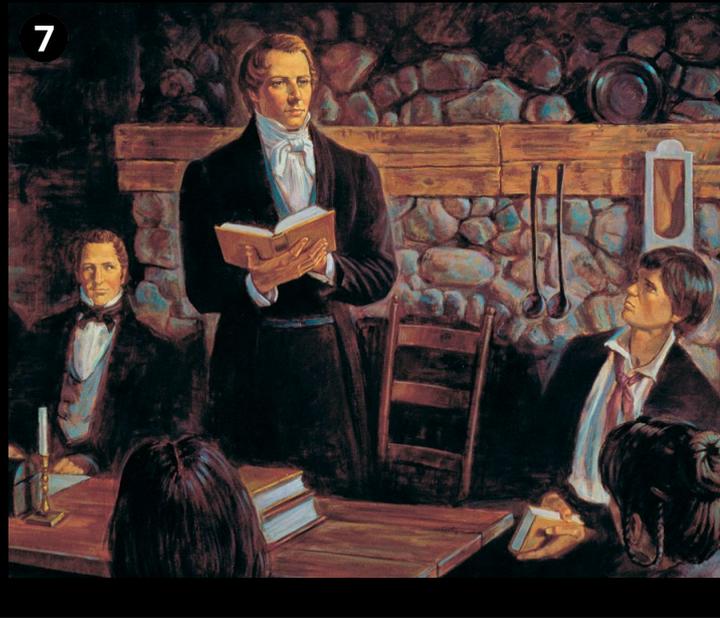
조셉은 완전하지 않았다.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주님은 그를 신뢰하셨고 그의 성장을 허락하셨다. 주님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당신의 권능과 권세, 즉 신권을 부여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과 성약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의식인 침례를 주셨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당신의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며, 우리는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6 물몬경의 출판

박해가 거세지면서 조셉은 물몬경을 계속 번역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와 에머와 올리버는 올리버의 친구인 데이비드 휘트머가 사는 뉴욕주 페이엠티로 거처를 옮겼다. 그들은 휘트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휘트머 가족의 도움으로, 조셉과 서기들은 그곳으로 옮긴 지 몇 주 만에 번역을 마쳤다. 그들은 이 비 그랜딘과 협력하여 뉴욕주 팔마이라에 있는 그의 인쇄소에서 물몬경을 5,000부 출판했다. 마틴 해리스는 자신의 전 재산인 농장을 담보로 그 비용을 지불했다. 1830년 3월 26일 첫 번째 책들을 판매할 준비가 끝났다. 마침내 물몬경이 나오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할 때가 왔다.



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함

나는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되던 날 휘트머의 조그만 집에 모였을 40~50명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스물네 살의 조셉이 일어나 첫 모임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상상해 본다. 이날,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다니엘 2:44)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직 조셉, 에머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와 그 밖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필요하셨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시다. 초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노력을 주님께 헌납할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그분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이사야 29:14)



8 계속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되는 권세와 가르침, 성약과 의식을 되찾게 되었다. 회복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희생과 신앙과 간증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계속된다.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지고 갈 때마다, 복음을 나눌 때마다,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있는 것”이다.⁶

여러분은 휘장 양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

주

1.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 (2018), 11~15쪽 참조.
2. 조셉 스미스, 1832 account of First Vision, ChurchofJesusChrist.org.
3. 러셀 엠 벨슨,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127쪽.
4. 『성도들』, 제1권, 22쪽 참조.
5. 『성도들』, 제1권, 53쪽.
6. 러셀 엠 벨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리아호나』, 2020년 11월호, 92~93쪽.



선지자 조셉 덕분에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덕분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갔던 조셉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구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후기에 당신들을 드러내셨으며, 조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총만함을 회복하기 위해 일으켜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몰몬경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몰몬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자 성약입니다. 조셉이 금판을 가져오기에 합당했으며, 하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것을 번역... 한 덕분에, 우리에게 몰몬경이 있는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1928~2023) 회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리아호나』, 2023년 11월호, 74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파푸아뉴기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 파푸아뉴기니에 처음 온 것은 1980년이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마을로 와 자기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이 친구들을 통해 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1984년에 첫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고, 1995년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다음은 파푸아뉴기니의 교회 현황이다.



회원 (약) 38,700명



스테이크 2개, 지방부 12개,
와드 및 지부 94개, 선교부 2개



포트모르즈비에 있는 성전 1개(발표됨)

개인적인 구주

포트모르즈비에 있는 게레후 지부의 주디나 남바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제게 중요한 복음 가르침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서 알게 된 것과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성전 예정도



하늘의 보물

이번 달 교리와 성약 학습은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교리와 성약 6:27) 들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영적인 경험, 성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등 하늘의 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의 교회 잡지 기사를 확인해 본다.

이번 호를 통해 배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와 그의 아내 해리엇 자매의 모범을 따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2쪽 참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당장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함을 기억한다.

교회 역사 유적지를 탐사한다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교회 역사 유적지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곳이 오늘날에도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12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성장에 중요했던 장소나 경험은 어떤 것이었는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기 인생에서 이러한 성스러운 시간 중 하나와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

36쪽에 있는 기사를 읽고 성전 엔다우먼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넓혀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이 가르친 것처럼 영원한 관점을 얻거나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그 경험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 수도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가족 활동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교리와 성약 6편: 11~16편

각 가족 구성원에게 사진, 책, 장난감 등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 주고 그것이 왜 소중한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들을 함께 토론한다.

- 주님은 당신의 종들이 부지런히 선교 사업에 참여하면 무엇을 “쌓아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교리와 성약 6:3; 11:3; 12:3; 14:3 참조)
- 교리와 성약 6편 20절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무엇을 “소중히 간직해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교리와 성약 6편 27절에서 “보물”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교리와 성약 15편 6절과 16편 6절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값이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기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토론을 준비할 때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의 2021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나의 영혼에 속한 것”을 복습할 수도 있다.

매주 월요일 복음 생활 앱에서 가정의 밤에서 할 “재미있는 가족 활동” 아이디어를 더 찾아본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잡지에서

어려운 가족 상황

청소년들이 이상적이지 않은 가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알아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선택의지를 사용한 방식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아끼는 사람들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하다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선교사들에게서 직접 듣는다.

『친구들』 잡지에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콜롬비아예요!

이 나라의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그곳에 사는 친구를 만나 본다.

빛에 집중하다

존 에이 맥쿤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는 것에 관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 본다.

엄마의 침례식

엄마와 같은 날 침례를 받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

복음 나누기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조언을 알아본다.





크리스틴 엠 이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성약 안에서 얻는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지금 행복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석했던 상호부조회 반에서, 사랑스런 한 자매님은 “열심히 노력하여”(교리와 성약 58:27)라는 말이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는 놀라운 자매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의 헌신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수많은 선한 자매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제 생각에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행을 더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세상의 문제나 우리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의 축복



2024년 3월 전 세계 상호부조회 영적 모임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필요한 바를 분별하고 [우리]의 힘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 지혜를 갖추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¹

성약의 여성인 우리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축복받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필요한 바”를 알고 “[우리]의 힘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나치게 자극받고, 과잉생산적이며, 고단한 세상에서 흔히 찬사를 받는 광란의 속도와는 다른,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또는 경솔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이사야 52:12)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권능을 얻을 때 옵니다.

안식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편을 선택할 때 옵니다. 안식은 우리의 필요 사항과 염려에 대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더 높고 더 거룩한 관점을 선택할 때 옵니다. 안식은 우리가 서로를 덜 판단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옵니다. 안식은 우리가 구주께서 주시는 위안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데서 기쁨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주의 위안을 가져다주게 할 때 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자비로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기억하고 숙고할 때 옵니다.

안식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옵니다. 넬슨 회장은 성전을 우리의 “피난처와 재조정의 장소”,³ 즉 우리가

저는 이 특별한 종류의 안식은 우리가 이 일을 홀로 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권능을 얻을 때 옵니다.

황급히 나가지 않는 것은 구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화평과 평온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약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오는 보상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심적 고통을 더 잘 이겨 낼 힘을 줍니다. 이 권능은 우리의 길을 수월하게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더 위대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를 통해 오는 특별한 종류의 안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 여러분은 혼란과 왜곡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에 둘러싸일지라도 진정한 안식, 즉 심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²

저는 이 특별한 종류의 안식은 우리가 이 일을 홀로 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식을 얻는 곳으로 만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관점으로 무장되어 그분의 집을 나설 것이며,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있어 [우리]를 받쳐 [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88)

성약 안에서 얻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1:28~29; 강조체 추가) ■

2024년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나는 말씀, “Come and Take Your Place as Covenant Women”에서 발췌함.

주

1. 러셀 엠 넬슨, “여성의 영향력”(전 세계 상호부조회 영적 모임, 2024년 3월 17일), 복음 자료실.
2. 러셀 엠 넬슨, “세상을 이기고 쉬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22년 11월호, 96쪽.
3. 러셀 엠 넬슨, “여성의 영향력”.



내가 회복된 교회를 선택한 이유

카를로스 라바날레스, 과테말라

가족, 가치관, 직업, 인생의 목적 등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의 존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덕분이다.

코드를 스캔하여
더 읽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멜리사 스미스, 미국 유타주

한 가족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가족을 마음에 두고 계심을 내게 보여 주셨다.

상 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우리 와드의 어느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직과 건강 문제, 그 밖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가진 것을 다 써 버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성신이 내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감독님과 상의를 한 후에 그날 중으로 다시 연락을 해 주겠다고 그 자매님을 안심시켰다. 나는 이 가족, 특히 자녀들을 도와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후, 나는 감독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 모두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부름을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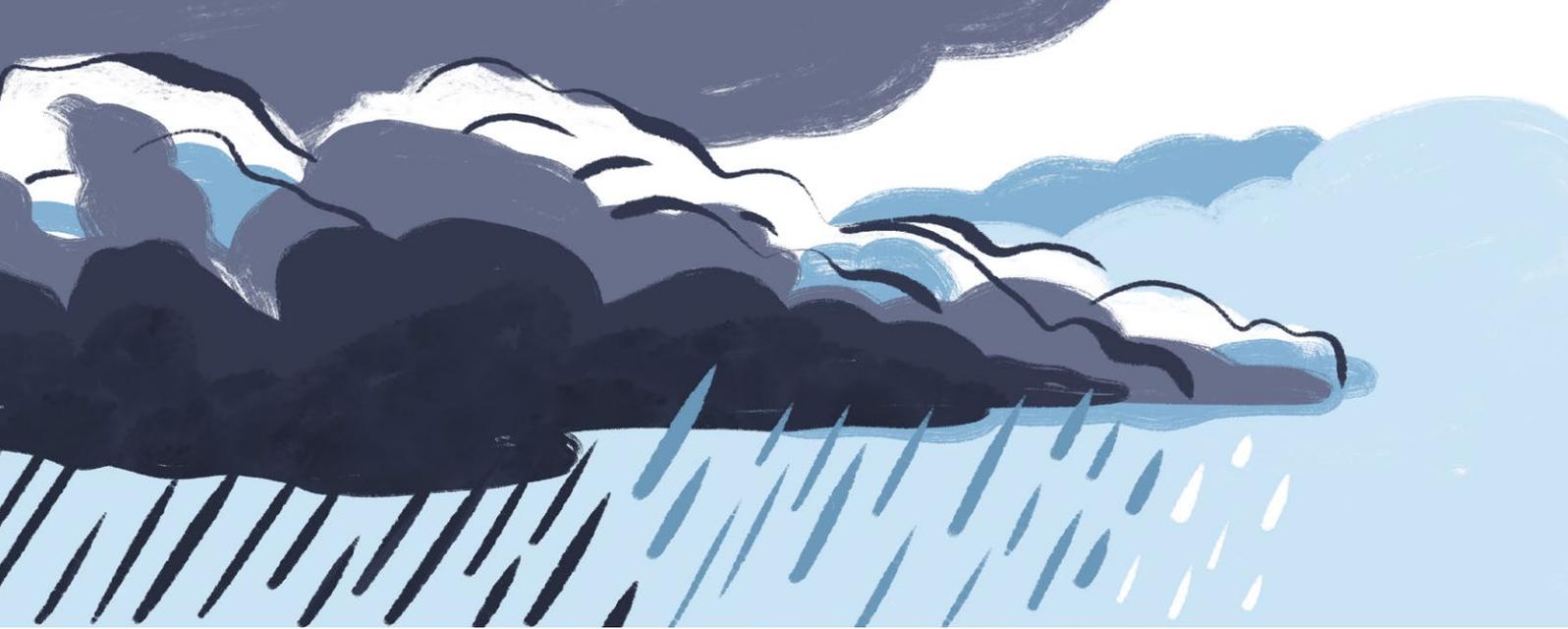
나는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한 다음, 그 가족을 위해 장을 보고 감독님이 돌아오는 대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필요한 몇 가지 물품도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기다려라.”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영의 속삭임을 따라 차에서 내렸다. 한 시간 후,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 밖에는 우리 와드의 미망인 한 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식료품이 담긴 커다란 봉투 두 개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스미스 자매님,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그러고는 서둘러 현관 계단을 내려가 자기 차로 걸어갔다.

영이 주는 감사와 사랑에 찬 느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던 니파이를 떠올렸다.(니파이전서 4:6 참조)

기도하며 세미하고 고요한 속삭임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는다.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6)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행할 바도 알게 된다. 주님께서는 이 가족의 절박하고 즉각적인 필요 사항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셨다. 나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를 목격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미망인 자매님은 절박한 순간에 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헌물을 바쳤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고뇌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로

익명

이혼을 하고 난 후, 나는 와드에서 지도자로 봉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다.

1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교회와 결혼 생활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우리 모두 성숙함도, 친절도, 용서도, 사랑도 부족했지만, 나는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와드 감독단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고통 속에서 한밤중에 잠을 깨곤 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마치 안전하게 차를 몰던 운전자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돌진하는 다른 차에 치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의 순종은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와드 회원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범적인 가족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가족을 둔 와드 지도자였다. 삶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와드 회원들을 대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름에서 해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힘드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하니까요.”

5년이라는 힘든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내가 변화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사랑을 품고 용서하게 되었다. 내 영혼은 더 평온해졌다. 나는 내 연약함을 성신으로 정련되는 기회로 보았다.(이더서 12:27 참조)

이윽고 나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두 자녀를 둔 한 훌륭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2020년에 내 아내가 되었다. 나는 그 이후로 항상 행복하다. 매일 밤 흘렸던 고뇌에 찬 눈물은 이제 감사의 눈물이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정말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신다.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주신 다음 권고에서 위안을 얻는다. “가정에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부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그 사슬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으며, 어쩌면 끊어진 고리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¹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군계 매는 연결”(전 세계 청년 성인 영적 모임, 2017년 9월 10일), 복음 자료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달리스 산티아고,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이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을 받았다.

2017년 9월에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를 강타했을 때, 여러 개의 섬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한 미국 교회 회원이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 중이던 나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 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게 큰 배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푸에르토리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토르투가섬으로 음식과 물자를 실어 갈 수 있을 테지요. 회장님이 물품을 모으는 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응하여,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음식과 의복 및 기타 물품을 기부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구호품을 가득 실은 배를 토르투가로 두 차례 보냈고, 스테이크 센터에 모아 둔 물품을 세 번째 배에 실어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태풍인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했을 때 그것은 우리 섬을 초토화시켰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쓰러진 나무들과 잔해와 파괴된 건물 때문에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테이크 센터에는 음식과 물, 의복, 개인 용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물품들을

모았었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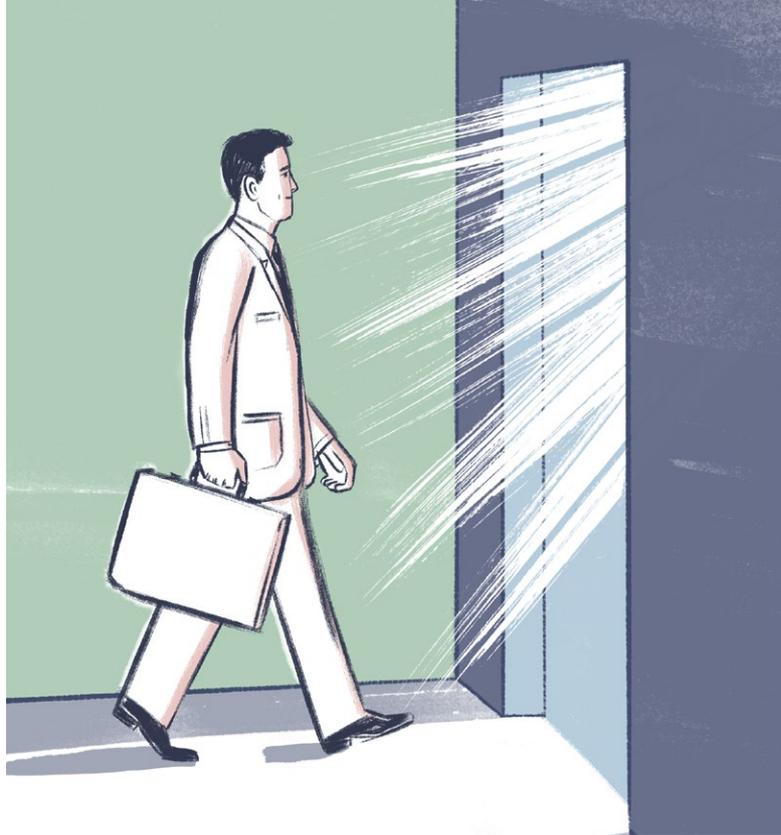
허리케인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두절되었다. 푸에르토리코 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동안, 우리에게 구호품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마침내 남편이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스테이크의 몇몇 회원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집이 파괴되어 모든 것을 잃은 두 자매를 찾아갔다.

그가 말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다 있거든요. 스테이크 센터에는 구호품이 가득하답니다.”

교회 회원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는 미국 교회 회원들이 기부한 금액형 기프트 카드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교회는 또한 우리 섬에 음식과 물, 기타 물자 같은 인도주의 자원을 지원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이러한 기부를 통해 수많은 푸에르토리코인을 도울 수 있었다.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간 후 우리가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간 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울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누가복음 6:38) ■



일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크리스토퍼 디버, 미국 캘리포니아주

꿈에 그리던 직업이 위태로워졌을 때,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출근 첫날, 나는 내 관리자에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전했다.

그녀는 내가 일요일에 일할 필요가 없도록 내 일정을 조정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회사가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나는 일이 즐거웠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었다.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내 관리자가 이렇게 말했다. “일요일에 출근을 해 줘야겠어요. 이번 분기를 힘차게 마무리하고 본부에 좋은 성적을 보고하려면 팀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배 속이 아려왔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팀 전체가 출근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제 신앙에 어긋나는걸요.”

그러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당신의 신앙을 위해 이 직업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나는 내 일을 사랑하는 만큼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주님께 내 사랑을 보이기로 결심했다.(고리와 성약 59:9~10 참조)

관리자가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주 일요일에 딱 한 번만

일하면 돼요.”

그것은 상관없었다. 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실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해고예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마음속에 성신을 느꼈다.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한 표징이었다.¹ 나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후,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았다.

주님께서서는 니파이전서 17장 13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세상의 바람은 우리가 구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것이다. ■

주 1.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30쪽.



생각을 바꾼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애비 라킨스

기쁨을 느끼기 위해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하는 데 집중했을 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몇
몇

년 전, 나는 심각한 습관에 빠져 있었다. 자존감이 낮았고, 불안감에만 몰두했으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남과 비교했다.

아무리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에는 위안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평소에는 진부하다고만 여겼던 긍정적인 사고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시도해 보니, 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권리를 의롭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내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하며 생활한다

긍정적인 사고란 힘든 일이나 힘든 감정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긍정적 사고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¹

내 생각은 주로 나의 두려움과 불안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그다지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문제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보전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다.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고 기분이 나아진 한 가지 비결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대신, 하루 중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때로는 반 친구가 해 준 친절할 말이 내가 찾은 좋은 것이었다. 또 어떤 때 그것은 아름다운 봄날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나 맛있는 식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감사를 실천하면 삶의 즐거움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번 시도해 보라! 우리가 경험하는 선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교리와 성약 78:19 참조)

나는 좋은 순간들을 보물을 모으듯 모았고,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얼마나 큰 축복과 감사함을 느꼈는지 늘 놀라곤 했다. 삶의 힘든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따끔거림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쁨을 키우겠다고 선택한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곤 한다.

교리와 성약 58편 27~28절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해 주신다. “사람은 …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라.]”(강조체 추가)

나는 기쁨과 웃음, 평화, 영감의 순간에 집중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런 순간을 더 많이 만들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힘은 바로 내 안에 있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계획한다.
- 신권 축복을 받는다.
- 자연 속에 머문다.
- 거룩한 곳에 선다.
-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운다.
- 좋은 책을 읽는다.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 여러분을 고양시켜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 운동을 한다.
- 긍정적인 미디어를 청취하고 시청한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우리가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도록 선택함으로써 계속해서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수 있다.

치료와 명상, 생활 방식의 변화, 약물 치료를 진지한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및 성전 예배와 병행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힘에 벅차거나 피곤할 때 속도를 늦추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와 위안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갖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니파이후서 2장 25~26절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준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강조체 추가)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고 기분이 나아진 한 가지 비결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선택의지를 통해 기쁨을 키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며,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권능을 갖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행복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만 인생의 행복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편 118:24]”²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하자 내 삶도 바뀌었다. 나는 더 자신감 있고, 친절하며, 더 기쁘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회를 받아들이는 데 더 열려 있다. 또 내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내리는 데 더 능숙해졌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인도를 구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나는 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주

1.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3~24쪽.

삶이 힘들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리니 스틸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했다.

삶

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이것을 안다! 우리는 어려움에 맞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분 계획의 일부이다. (베드로전서 4:12~13 참조)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내가 왜 이토록 많이 힘들어하는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지, 왜 종종 내가 길을 잃고 외롭다고 느끼는지 궁금해진다. 나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데, 우울증 때문에 내가 행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

몇 년 전, 나는 삶에서 영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가 약하고 불안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했다. 내게 삶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매우 많이 들었다.

힘든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확신을 간절히 원함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던 어느 날, 나는 여행을 떠나 바다가 보이고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위안의 장소이자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분께 삶이 너무 힘들고 혼자서는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그분께 삶의 힘든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연약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갑자기 영의 따스함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부드러운 확신이었다. 그리고 사랑과 위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신성한 정체성과 잠재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었다.

몇 달 동안 외로움과 불확실함을 느낀 후,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목적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하늘의 확신을 느꼈다. 나는 영적인 은사를 부여받았고, 성약 덕분에 우주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강력한 존재이신 그분께 결속되었다. 감독님은 내가 구주와 함께 인생의 모든 일을 마주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신시켜 주셨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에 대해 간증하셨다. “여러분은 엔다우먼트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자매 형제이기에 삶을 홀로 헤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자신감이 커지십니까?”¹

두려움을 내쫓음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신앙을 행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구주를 믿는 신앙을 구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안다.(요한1서 4:18)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내가 겪는 어려움이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시키는 속죄를 통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²

나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단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신앙이 단지 믿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약 관계를 통해 그분들은 매일 나와 함께하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때, ... 우리는 힘든 일을 해내고 극복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³

그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

글쓴이는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산다.

주

1. 러셀 엠 넬슨, “신권 열쇠의 은사에 기뻐하십시오”,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121쪽.
2. 게릿 더블유 공, “만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42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리아호나』, 2024년 5월호, 31쪽, 번역 수정.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가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놀라운 시현을

보았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엔다우먼트에서 구원의 계획에서

구주께서 맡으신 역할을 볼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구주와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가게 될 날을

준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매슈 맥브라이드

교회 역사부

회 복의 선지자로서 조셉 스미스는 영원한 세상에 관한 놀라운 시현을 목격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는 구주를 여러 차례 뵈었고 시현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경험했다.¹

조셉만이 그런 시현을 본 유일한 선지자는 아니다. 경전에는 영원의 관점에서 본 충실한 사람들에 관한 여러 기사가 실려 있다. 아브라함은 전세의 천국 회와 지구의 창조를 포함한 영원한 세상을 보았다.(아브라함서 3장; 4장 참조) 모세는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으며, 창조, 아담과 이브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포함하여 “이 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모세서 1:1, 36) 에녹, 니파이, 계시자 요한은 유사한 시현을 통해 선지자로서의 관점을 얻었다.(모세서 7장; 니파이전서 11~15장; 요한계시록 1장 참조)

이 이야기들을 읽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 계획의 광대함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성도들은 엔다우먼트를 통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얻었다

조셉은 미국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다른 초기 성도들이 고대의 선지자들처럼 그들 스스로 영원한 세상을 엿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노력했다. 성도들이 커틀랜드 성전을 지을 때, 주님께서는 후기의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가 “하나님을 보리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97:16)

조셉은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 후, 1836년 1월을 시작으로 두 달 후 성전 헌납식과 성회로 절정에 이르면서, 커틀랜드의 많은 성도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약속된 영원한 세상을 잠시나마 보았다. 조셉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구주께서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동안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되새기며,

이러한 경험을 “진정한 엔다우먼트”라고 언급했다.²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전후의 시기는 놀라운 순간이자 성스러운 절기였으며, 초기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위대한 기적 중 하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하늘 사자들의 방문을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미래의 성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몇 년 후, 미국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커틀랜드에서 “권능의 엔다우먼트”를³ 경험하지 못한 수천 명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영국과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선교부에서 몰려들었다.

성도들이 나부에 모이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엔다우먼트에서 극적인 재현을 통해 주님의 계획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보여 주라는 영감을 주셨다. 창조,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을 통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은 성전에서 반복해서 행해지는 엔다우먼트 의식의 핵심이었다. 성도들은 이를 통해 자신과 조상을 위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야기한 시현의 경험과는 다르지만, 의식의 핵심 내용은 같았다.

엔다우먼트는 참여자들을 장대한 서사 속에 자리매김하게 했다. 성도들은 단순히 예언적인 시현에 대해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소리를 통해 영원한 세상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성약을 맺으면서 이야기 속의 배우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산에 오른 니파이나 커틀랜드에서의 조셉 스미스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할 때, 선지자들을 가르쳤던 바로 그 영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엔다우먼트를 통해 그들은 일상의 관심사를 긴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음으로써 성도들은 일상의 관심사와 힘든 시련을 긴 안목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구주의 사랑에 대해 다시 확신을 주었고,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기시켜 주었다. 사라 피 리치는 성도들이 강제로 나부를 떠나 유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난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했다. “성전에서 주님의 영의 영향력과 도움으로 배운 지식과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 여행은 그저 무모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⁴

리셀 엠 넬슨 회장은 엔다우먼트의 가르침과 성약이 “우리 자신의 힘과 시야의 한계 위로 우리를 들어올려” 준다고 가르치며 사라의 통찰을 확인해 주었다.⁵

넬슨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각 성전은 배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배웁니다. 그분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들과는 다릅니다.” 넬슨 회장은 경전 공부와 같은 영적 준비가 성전 경험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고대 경전을 읽는 것은 성전 엔다우먼트와 친숙해진 후에 더욱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⁶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서 구원의 계획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할 때 사용되는 방법은 교회 회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된 영상으로 바뀌었다.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지난 180년 동안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산에 오를 때 경험하는 넓고 영원한 시야로 축복을 받았다. ■

주

1. 조셉 스미스, "The Answer", *Times and Seasons*, Feb. 1, 1843, 82;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2. 조셉 스미스, "Journal, 1835-1836", 189, josephsmithpapers.org.
3. "권능의 엔다우먼트", 교회 역사 주제, 복음 자료실 참조.
4. 사라 피 리치, *Autobiography and journal, 1885-1890*, 66,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5.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8쪽.
6.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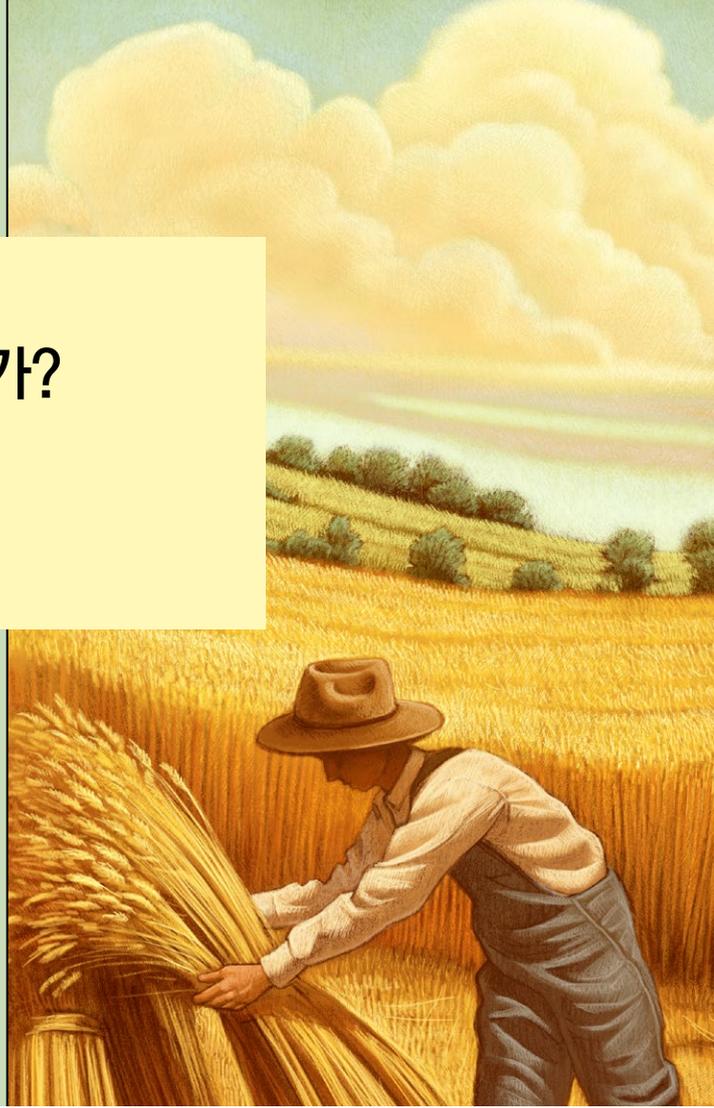




추수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교리와 성약 6:3; 11:3; 12:3; 14:3)

18 29년에 주어진 여러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추수에 참여하라는 계명을 반복해서 주셨다.(교리와 성약 4편, 6편; 11편; 12편; 14편 참조) 각 계시에서 일부 구절이 반복되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성구들에 나오는 상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희어진 밭

밭이 하얗게 변하면, 곡식의 성장이 끝나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표시이다. 추수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낫

낫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낫에는 날카롭고 구부러진 날이 있어 사용하는 사람이 큰 덩어리를 쉽게 자를 수 있다. 낫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였다. 그것은 성전, 경전, 우리의 재능, 간증 등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나타낼 수 있다.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둘러

휘두르다(thrust)라는 말은 밀거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것은 무심히 하는 쉬운 동작이기보다는 단호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돕는 데는 신앙, 노력, 끈기 및 헌신이 필요하다.



너희 낫을 휘둘러, 그레그 뉴블드



거두다

농부들은 수확할 때 밭에 들어가 잘 익은 곡식, 채소, 허브 또는 과일을 모두 모은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거두는 일을 돕는다. 여기에는 복음을 나누고, 조상을 위해 성전 사업을 수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낫 동안

이 문구는 추수 작업의 긴박감을 나타낸다.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작물이나 곡식이 준비되었을 때 일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확을 잃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는 제십일시라, 내가 일꾼들을 나의 포도원에 불러들일 마지막 때니라.”(교리와 성약 33:3)



곳간에 쌓아 두다

모든 좋은 곡식을 모으면 추수가 끝난다. 그것들은 보호되고 보존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울 때,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여러 편에서 집합에 대한 비유가 반복되지만,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수확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지만, 개심은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다. 추수를 돕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러셀 엠 벨슨 회장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 “취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필수적인 침례와 성전 의식들을 받도록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것입니다. 것처럼 단순합니다.”¹ ■

주

1. 러셀 엠 벨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복음 자료실.



하나님께 계시를 구함

교리와 성약에는 계시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새로운 직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무엇일까?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의 삶, 인간관계, 또는 신앙에
대해 이와 같은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의
답을 구할 때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구절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계시를 받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시는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 “만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6:5; 또한 마태복음 7:7 참조)
- “계시를 받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¹ —러셀 엠 넬슨 회장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받는다.

-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머릿속에 생각이나 마음에 느낌을 주시거나 꿈이나 영감으로 주시기도 합니다.”²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계시를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9:8)
- “경전과 복음 진리들을 연구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인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크게 향상됩니다.”³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계시는 평안의 형태로 올 수 있다.

-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교리와 성약 6:22~23)
- “성신은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느꼈던 때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계시는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

-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3)
-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면 매일의 삶을 영원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고난과 심적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안겨 줍니다.”⁵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토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느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를 받기 위해 계시가 필요한 상황이나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4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in Sarah Jane Weaver, “Elder Bednar Teaches 5 Lessons on the Spirit of Revelation, How It Operates in the Work of the Lord”, Church News, July 9, 2018, thechurchnews.com.

3. 쿠엔틴 엘 쿡, “선지자에게 오는 지속적인 계시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계시의 축복”,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99쪽.
4. 헨리 비 아이어링,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6쪽.
5.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성령 인도하시어”,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93쪽.



조셉, 마틴, 그리고 잃어버린 원고



에서 얻은 교훈

구주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원리를 따르는 것은 이생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8 28년 여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부지런히 물문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셉의 서기인 마틴 해리스는 조셉에게 첫 116쪽의 원고를 자신의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뉴욕주 팔마이러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셉은 확신이 서지 않아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마틴이 원고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틴은 조셉에게 다시 여쭙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조셉이 다시 여쭙보았지만,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마틴은 조셉에게 한번 더 주님께 여쭙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¹

조셉은 마틴에게 아내와 가족 몇 명에게만 그것을 보여 주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한다면 원고를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틴은 약속하고 원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를 보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마틴이 원고를 가지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틴이 원고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셉이 이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3:5~8 참조) 주님께서는 한동안 금판과 조셉의 번역 능력을 거두어 가셨지만, 조셉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3:9~10 참조) 조셉은 회개했고, 시간이 지나 판을 다시 받았습니다. 조셉은 새롭게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²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
명예 칠십인
총관리 역원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좌절될 수 없다

이 극적인 시련을 겪은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말한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일임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3:1~3)

하나님의 일이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기대한다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 ... 그는 반드시 타락하[느니라.]”(교리와 성약 3:4)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고린도후서 4:8~9)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서는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3: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확신과 굳건함, 힘과 인도를 받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주님께서서는 조셉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3:10)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합당하게 서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9:16)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저는 한 형제의 교회 회원 자격을 철회시키는 결과를 낳은 회원 자격 평의회를 감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일 년 후에 다시 침례를 받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저는 그에게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회장님, 어제 침례 의식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새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에게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저는 죄의 억압에서 벗어났음을 느낍니다. 저 혼자서는 이 일을 이루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도자들과 아내가 제가 계속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구주이십니다. 용서가 낳는 기적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처럼 회개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업에서 새롭게 봉사하도록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라

우리가 이생에서 발전하고자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틴 해리스가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지극히 성스러운 약속들을 깨뜨리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3:13)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의 영감과 인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유순, 온유, 겸손, 인내, 사랑이라는 덕목을 갖추므로써 제자 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9; 교리와 성약 4:5~6)

우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발전할 많은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잠언 14:12)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것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8~9)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

주

1.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2018), 51~53쪽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69~71쪽 참조.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앤드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패트릭 키아론

편집자: 로버트 엠 데인즈

부편집자: 최윤환

고문: 데이비드 피 호머, 외르크 클레빈가트, 가브리엘 더블유 리드, 크리스틴 엠 이

관리 책임자: 제이슨 제이 미첼

교회 잡지 책임자: 애덤 시 울슨

출판 팀 관리자: 리 기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코디네이터: 달론 보즈, 클라크 마일즈

관리 편집인: 마틴 배런

관리 부편집인: 브리트리니 비티, 라이언 카, 시 매슈 플리턴, 민디

셀루

출판 보조: 낸시 서튼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게릿 에이치 가프, 차켈 위들레이 허버트, 마이클 알 모리스, 앨리스 알 우드

편집 인턴: 잭키 더피 애셔, 헨리 쇼렌슨, 메이블 티어링크

미술 책임자: 마이클 던퍼드

디자인: 아이라 글렌 여데어, 페이 피 앤드러스, 줄리 버넷, 데이비드 그린,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콜린 힝클리, 스티븐 넬슨

디자인 인턴: 카일리 보딜리

제작 관리자: 암몬 해리스

제작 팀: 에밀리 조 블랜처드, 베일리 에스카밀라, 에바니

페이스, 데릭 워시번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통권: 제707호, 제62권, 제2호

최초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재등록: 2021년 11월 3일, 서초-라11806호

발행일: 2025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헌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 남관 205호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충준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빈도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2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시각 자료는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5,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구독 상담 서비스: 1-800-537-5971.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복음 자료실에서 더 보기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용 『리아호나』 기사

매달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복음 자료실 앱에서 더 많은 『리아호나』 기사를 볼 수 있다. 부모, 독신 성인, 『와서 나를 따르라』, 신앙으로 인생의 역경에 대처하기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이야기와 통찰이 담긴 주제들을 번갈아 가며 다룬다.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복음 자료실의 잡지 또는 성인 섹션 >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에서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사를 더 찾아본다.

복음 자료실 앱 알림 설정

복음 자료실 앱에서 설정을 하면 새로운 『리아호나』가 발행될 때마다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다. 메뉴 아이콘을 선택한 후에 설정, 알림, 새로운 자료를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참여하기

질문이나 피드백, 또는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 링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우편 주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 있는 조셉과 에머 스미스의 집을 묘사한 예술가의 작품.

18 27년, 신혼 시절에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에머 가족 농장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조셉이 물문경의 일부를 번역하고 교리와 성약 3~13편과 24~27편이 될 계시를 받는 동안 에머, 마틴 해리스, 올리버 카우드리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서기로 봉사했다. 근처 숲에서 침례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야곱 집의 한 가지였음을 이 백성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 바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드러내리라.

그뿐 아니라 나는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나의 복음을 드러내리[라].”(교리와 성약 10:57, 60~62)

기쁨을 선택함

생각을 바꾼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30



『성도들』, 제4권에 실린
이야기

비극적인 폭발과
그 뒤를 이은 기적

8

교회 역사 사이트

성스러운 회복의 사건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12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4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4 02196 09320 8